작. 게오르크 뷔히너

당통의 죽음

Dantons Tod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제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당통의 죽음
Dantons Tod

게오르크 뷔히너 작
임호일 번역
이수인 각색·연출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 10월 13일(일)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본 공연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에서 출판한
「당통의 죽음」(임호일 번역)을
토대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작가 소개

게오르크 뷔히너

Georg Büchner, 1813~1837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짧은 생애 동안 단 세 편의 희곡과 한 편의 소설을 남겼지만, 독일의 근대 문학계와 연극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독일 다름슈타트(Darmstadt) 근교 소도시인 고델라우(Goddelau) 출생으로, 유복한 시민계급이자 외과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학을 공부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유학하는 동안 프랑스 문학과 정치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짧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독일 기센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는 중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여 당시 헤센 대공국 체제하의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고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농민들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헤센 대공국을 비판하고 농민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의 전단 '헤센의 급전(Der Hessische Landbote)'를 제작·배포하여 정치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 망명길에 오른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당통의 죽음>은 망명 자금을 마련하고 혁명에 대한 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집필되었다고 한다.

뷔히너는 아버지의 권유로 선택했던 의학 공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박사학위를 취득 후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교수로 초빙된다. 하지만 정식 교수 임용을 기다리던 중 티푸스에 걸려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마감하였다. 주요 작품에는 희곡인 <당통의 죽음(*Dantons Tod*, 1835)>과 <레옹세와 레나(*Leonce and Lena*, 1850)>(사후 간행), <보이체크(*Woyzeck*, 1879)>(사후 간행)가 있으며, 미완성 단편소설 <렌츠(*Lenz*, 1839)>가 있다.

이수인

극단 떼아뜨르 봄날 대표

연출가 인터뷰

우수진
드라마투르기

주요작품 <어둠상자> <우리가 아직 살아 있네요> <춘향> <트로이의 여인들> <심청> <왕과 나> <해피투게더> <엔론> 외

수상내역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제4회 레드어워드
제2회 윤영선 연극상

**"혁명은 허상입니다.
매일 이어지는 개개의 삶이 실재하는 전부지요.
노래는 그 점을 은유합니다."**

1. 다소 진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통의 죽음>의 어떤 매력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라는 말에 끌려 모든 걸 바쳐도 좋겠단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멋진 표어입니다. 전체를 위한 하나는 쉽지만, 하나를 위한 전체의 모습과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견해가 현대 정치학의 기본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당통의 죽음>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생각이 다른 타인을 함부로 단순화시켜 폄훼하거나 너무도 쉽게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봅니다. 진보 혹은 민족이라는 화두를 절대화시켜 다양한 삶, 다양한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당통의 죽음>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에 대해 재미있는 방식으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이 작품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그 혁명을 추동했던 계몽주의라는 역사와 철학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혁명을 이끌어갔던 두 인물인 당통과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실상 아주 오래되고 복잡해서 결코 쉽지 않은 뷔히너의 정치 드라마에 대한, 연출적인 해석의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요?

저는 당통과 로베스피에르,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당통은 폭넓은 자유와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지만 무신론자인 까닭에 기댈 곳 없는 삶의 허망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한편 로베스피에르는 도덕이라는 공동선에 기대어 보지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위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3. 이수인 연출가님과 떼아뜨르 봄날의 작업은 그동안 고전을 유쾌하게 해체하고 현대적으로 명료하게 재구성하면서 언어적 위트와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로 가득 찬 무대를 선보여왔습니다. 창작극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번 <당통의 죽음> 역시 '이수인' 또는 '떼봄' 고유의 방식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출의 원리라든가 스타일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니면 기존 작업과 다르게 무언가 새로운 시도가 있는지요.

진지한 화두를 '진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지하게 그린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빠르고 힘 있게 전개될 겁니다. 느리게 꾹꾹 눌러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잘 들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객들이 듣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경쾌하고 겁나게 빠른 랩의 가사도 듣고자 하면 다 잘 들립니다. 따라서 관객의, 듣고자 하는 태도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서정적이고자 합니다.

4. '이수인 연출'의 가장 큰 특성이자 장점은 음악성, 구체적으로 말해 연극적 리듬감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실제 사용되는 음악뿐만 아니라 극중 언어와 배우들의 움직임까지도, 전체가 마치 하나의 음악과 같이 전개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당통의 죽음>에서는 이러한 음악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씩씩하고 장엄한 행진곡이나 군가도 속도나 분위기나 부르는 정서에 따라 아주 슬픈 연가처럼도 들리기도 하지요. 혁명은, 특히 이 작품 속에서 혁명은 그저 뜨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만가(輓歌), 혹은 레퀴엠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방식의 변주, 혹은 모티프의 변환이 주 전략이 될 법합니다.

5. 그동안 이수인 연출의 작품에서 음악은 단순히 배경에만 그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희곡의 언어와 배우들의 움직임과 함께 적극적으로 극적인 행동을 만들거나 은유와 상징의 장치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당통의 죽음>에서 연출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곡목이나 어떤 음악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극의 전반부 군중 장면에서 로베스피에르의 등장과 연설에 이르는 전 부분을 라이브 반주에 맞춘 힘 있는 구음과 집단적 움직임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극의 막바지 중요인물들이 다 처형된 이후, 주요 여성 캐릭터들의 분노와 슬픔을 하나의 노래로 집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극의 처음과 끝을 해설자로 추정되는 여배우가 두 곡의 현대적 상송으로 열고 닫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를 있게 한 그 나라 국민의 용기와 꿋꿋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이 중시했던 자유와 쾌락과 관용이라는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혁명은 허상입니다. 매일 이어지는 개개의 삶이 실재하는 전부지요. 노래는 그 점을 은유합니다.

6. 마지막으로 <당통의 죽음>을 보러올 많은 관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삶과 죽음, 세계의 아득함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일 겁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개인으로서의 저는 당통의 태도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야지요. 공허하고 딱딱한 이념과 다수의 사상이 모두를 지배하는 세상은 반대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도, 민족의 이름으로도, 진보의 이름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결코 장황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랑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낸 인간들의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반주에 노래도 많고 볼거리는 더 많고, 어렵고 현학적인 얘기들은 걷어내거나 별로 어렵지 않게 각색도 좀 했습니다. 이야기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무대에서 펼쳐지는 놀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해설

역사의 숙명 앞에 선 당통, 그 뷔히너의 그림자

우수진

드라마투르기

주요작품

<유사유감>
<대한의 하늘>
<그리스의 연인들 3부작>
<심청>
<북새통의 겨울이야기>
<떠도는 섬, 오디세이아>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
외

"한 개인이란 그저 거대한 파도에 실린 한낮 거품일 뿐이겠지요, 개인의 위대함이란 그저 우연일 다름입니다, … 최상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해 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오. 나는 이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오, 역사의 장에 나오는 승리의 행렬을 이끄는 말이나 길모퉁이에 서있는 석고상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 따위 말이오."

<당통의 죽음>은 자서전적이다. 그는 위대했던 프랑스의 혁명을 다루면서 영웅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인물, 바로 조르쥬 당통을 선택했다. 아마도 <헤센의 급전>으로 정치범이 되어 쫓기고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일종의 '역사의 숙명론' 같은 새로운 인식에 도달했을 것이다.

작품이 시작하면 당통 역시 문제는 역사의 숙명론적 흐름임을 깨닫는다. 싫증을 느끼며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수레바퀴의 페달을 힘껏 잡아당기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방관하듯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혁명이 절정에 이른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혁명은 지롱드 일파를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로베스피에르는 당통의 온건파가 지나치게 느슨하고 비도덕적이고 비난한다. 하지만 당통은 자신의 태만이나 부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혁명의 공이 컸다. 당통은 조국을 구했던 것이다!!

1792년 9월, 쳐들어오는 연합군에 맞서 당통은 파리에서 연설을 했다. 용기를, 용기를, 다름 아닌 용기를 갖자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귀족을 한 번에 처형하여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프랑스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의의 자리에, 연합군은 불의의 자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연합군은 과거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혁명에 대한 당통의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당통의 죽음>이 시작되면 당통과 그의 친구들인 필리포와 에로 드 세셀, 카미유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숙명론에 대해 생각하는 당통은 예언하듯 말한다. "자유의 동상은 아직 주조되지 않았어. 우리 모두 거기에 손을 댈 수도 있다고." 당통은 자신의 업적과 명성에 의지한 채, 한때는 혁명의 동지였으나 이젠 정적(政敵)이 된 로베스피에르를 찾아간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한 후 자신의 패배를 깨닫는다. 한편 로베스피에르는 국민적 영웅인 당통에게 쏠려 있는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당통과 뷔히너에게는 미덕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로베스피에르의 시도가 너무 부조리하다. 뷔히너는 기센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 밖에서 작용하는 어떠한 힘이라고 확신한다.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도 숙명론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럴 경우 영웅은 설 자리가 없다. 그리스도 역시 예외는 아니며, 뷔히너가 보기에 그저 "어느 누구보다 섬세한 쾌락주의자"일 뿐이다.

마리옹과 당통이 만나는 장면에서 독일 문학은 처음으로 아무 선입관 없이 그려진 창녀를 마주한다. 그녀에 대한 도덕적 멸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여인을 통해 뷔히너와 관객은 '자신의 천성에 반하지만' 거역할 수 없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슬의 한 고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숙명론을 개인의 문제로 옮겨 그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무(無) 역시 뷔히너에게 숙명론이다. 당통은 혁명의 필연성도 알고 있지만 혁명의 무익함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함께 사행 집행을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는다. "이 세상은 혼돈이야.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무가 이제 곧 태어날 세계의 신(神)이지." 이러한 비관론 내지 허무주의는 더 없이 완벽하다. 이제 그는 유일하고 구차한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조차 부담감을 토로하며 실존주의적 인식을 선취한다. "젠장! 무언가는 무(無)가 될 수 없다. 나는 그 무언가다. 통곡할 일이지!"

이상은 Ernst Johann의 *Georg Büchner: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Hamburg: Rowohlt, 1958)* 중 'Dantons Tod'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줄거리

"민중들에게는 사람의 머리 대신 빵이, 피 대신 포도주가 필요하다!"

프랑스 혁명의 열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데, 정치가이자 혁명가인 당통은 혁명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고 후회와 자포자기적 향락에 빠진다. 반면 당통의 혁명 동지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철저한 도덕성과 공포정치를 통해 민중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 둘은 서로의 정치 이념을 지적하며 다투다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공회와 위원회를 점령한 로베스피에르가 당통을 체포하기에 이르는데...

At the height of the French Revolution, politician and revolutionary Danton is dismayed by the many contradictions that he encounters, and gives himself up to a life of hedonism. On the other hand, his comrade Robespierre establishes himself as a leader of the French Revolution through his strict morality and politics of fear. Their differing political opinions bring the two men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they end up taking separate paths. Then, having gained control of the National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of Public Safety, Robespierre arrests Danton...

출연진

백익남 Baik Ik-nam

당통 George Danton

<명왕성에서> <어둠상자> <말피> <춘향>
<준대로 받은대로> <1945> 외

엄태준 Uhm Tae-jun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

<햄릿> <성수> <소> <허튼 웃음> <이반검열> <정크 밴드> 외

홍아론 Hong Aaron

카미유 외 Camille Desmoulins

<운명> <1945> <남산에서 길을 잃다> <비행소년 KW4839>
<로미오와 줄리엣> <아메리칸 환갑> 외

이현호 Lee Hyun-ho

생쥐스트 외 Saint-Just

<어둠상자>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트로이의 여인들> <왕과 나>
<장석조네 사람들>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외

박창순 Park Chang-sun

라크루아 외 Lacroix

<어둠상자>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춘향>
<심청> <왕과 나> <해피투게더> 외

마광현 Ma Gwang-hyeon

필리포 외 Philippeau

<우린 적당히 말했다> <안산 순례길> <불행> <벗어난 원리들>
<시여 침을 뱉어라> <뜨거운 바다> 외

이원희 Lee Won-hee

르장드르 외 Legendre

<궁리> <바냐 삼촌> <갈매기> <문제적 인간 연산>
<페스트> <호신술> <바보 리어> 외

강지완 Kang Ji-wan

에로 외 Hérault de Séchelles

<심청> <어둠상자> <햄릿> <트로이의 여인들>
<언더니스 메모리> <겨울꿈> 외

김수아 Kim Soo-A

쥘리 외 Julie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우리 박사장의 식칼> <뼈의 기행>
<배소고지 이야기> <오슬로> <페스트> 외

장지아 Zhang Zia

뤼실 외 Lucile Desmoulins

<갈릴레이의 생애> <록앤롤 ROCK 'N' ROLL> <페리클레스>
<우어파우스트> <아마데우스> <밤으로의 긴 여로> 외

수상 2012 제17회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05 제26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주인영 Joo In-young

마리옹 외 Marion

<경남 창녕군 길곡면> <얼굴도둑> <경숙이 경숙이아버지>
<반신> <야끼니꾸 드래곤> 외

수상 2006 제43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2006 제11회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송은지 Song Eun-ji

귀부인 가수 시민 외 Dame Noble, Singer, Citoyen et al.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햄릿> <잉그리드 범람>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춘향> <해피투게더> 외

김세동 Kim Se-dong

시몽, 콜로 외 Simon et al.

<올드위키드송> <대학살의 신> <자객열전> <남자충동>
<날보러와요> <비닐하우스> 외

고애리 Ko Ae-ri

귀부인 시민 시몽처 외 Dame Noble, Singer, Simon's wife

<어둠상자> <미안합니다,픽션입니다> <춘향>
<비클래스> <소> <그리스 여인들- 안티고네>

김 현 Kim Hyun

라플로트 외 Laflotte

<looking for capitalism ; bitcoin> <춘향>
<호모 로보타쿠스> <코리올라너스> 외

장승연 Jang Seung-yeon

아델리 외 Adélie

<어둠상자> <춘향>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트로이의 여인들> <그리스의 여인들 안티고네> <왕과 나> 외

김지숙 Kim Ji-suk

로살리 외 Rosalie

<제르미날>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에 관하여> <제국의 일상>
<문제없는 인생> <산란기> <야만인을 기다리며> 외

<당통의 죽음>과 프랑스 혁명

우수진
드라마투르기

혁명의 시간들

1789	5월	베르사이유의 **삼부회**에서 제3신분(평민) 대표들이 신분별 회의에 반대 실내 테니스장에서 국민의회를 선포. 삼부회 폐지
	7월	**바스티유 감옥 습격**
	8월	**국민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 채택
	10월	서민 여인들이 베르사이유 궁으로 행진, 루이 16세는 파리로 피신 **자코뱅 클럽** 창설
1790	4월	**코르들리에 클럽** 창설
1791	7월	**상 드 마르스 학살**
1792	8월	**8월 10일 봉기**
	9월	**9월 대학살** **국민공회** 소집, 공화정 선포
1793	1월	**루이 16세 처형**
	3월	혁명재판소 창설
	4월	**공안위원회** 창설
	5월	왕당파의 리옹 반란, **샬리에** 처형
	7월	**장 폴 마라**, 암살
	10월	지롱드 일파 처형 마리 앙투와네트 처형
	12월	카미유 데물렝, **<비외 코르들리에>** 발간
1794	3월	**자크 에베르** 일파의 처형
	4월	당통 일파의 처형
	7월	로베스피에르 처형
1795	5월	혁명재판소 폐지
	10월	국민공회 해산

이하는 장 마생(Jean Massin)의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양희영 옮김, 교양인, 2005)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 입니다.

혁명의 용어들

삼부회

사제, 귀족, 평민의 대표로 구성된 신분제 의회

바스티유 감옥 습격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파리 근교에 왕실 군대가 배치되자 이에 격분한 파리 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이자 왕의 폭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이 사건을 프랑스 혁명의 시작점으로 간주.

국민의회

1789년 6월 17일 삼부회의 제3신분(평민) 대표들은 제3신분회가 곧 국민의회임을 선언.

자코뱅 클럽

파리의 자코뱅 수도원을 본부로 하여 자유주의 귀족과 진보적 부르주아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생겨난 프랑스 혁명 시대의 정치단체

코르들리에 클럽

본래의 이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벗' 협회. 코르들리에 수도원에서 회합. 자코뱅 클럽보다 더 좌파적이었으며 당통과 마라에 의해 주도.

<당통의 죽음>과 프랑스 혁명

혁명의 용어들

샹 드 마르스 학살

7월 17일 코르들리에 클럽 주도 하에 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샹 드 마르스(당시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공화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모임을 준비하였으나 국민군이 무력으로 시민들에게 발포,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8월 봉기

파리 빈민들이 루이 16세 일가가 머물고 있던 튈르리 궁을 습격하였으나 호위대에 의해 학살당함. 루이 16세와 그 가족은 탕플 성에 유폐됨. 이로써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됨.

9월 대학살

왕당파가 외세와 내통했다는 소문에 격분한 파리 시민들이 9월 2~7일까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반혁명 수감자들 2천 여 명을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함.

국민공회

지롱드 일파에 맞서, 로베스피에르와 당통, 마라, 생쥐스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 혁명의 최종 단계에서 구성된 의회

공안위원회

혁명이 위기에 처하자 설립된 국민공회의 통치기구. 4월부터 7월까지는 당통 일파가, 그 이후는 로베스피에르 일파가 주도.

조제프 샬리에 Joseph Chalier, 1757~1793

리옹의 도미니쿠스 수도회 수사 출신의 혁명가. 산악파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체포되어 처형당함.

장 폴 마라 Jean-Paul Marat, 1743~1793

프랑스 혁명기의 의사, 정치가, 언론인. 급진적인 산악파 지도자였으며, 목욕 중 지롱드파의 젊은 여성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암살당함.

지롱드 일파

입법의회의 좌파로 공화정을 주장하고 이어 개원한 국민공회에서는 우파로 산악파와 대결한 정파. 지롱드 출신의 의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데서 지롱드파라는 이름이 붙음.

비외 코르들리에 Vieux Cordelier

지(紙) 카미유 데물렝이 발간한 신문. 에베르파의 비기독교화 운동을 비판하고, 로베스피에르와 공안위원회를 정치폭력 남용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비난.

자크 르네 에베르 Jacques-René Hébert, 1757~1794

코르델리에 클럽 회원으로 급진파. 공포정치의 직접적 계기가 된 1793년 9월 봉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로베스피에르와 생쥐스트로부터 극단주의자로 비난받고 처형됨.

<당통의 죽음>과 프랑스 혁명

혁명의 인물들

조르주 당통 Georges Danton, 1759~1794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제1공화정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혁명가, 자코뱅당의 우파인 관용파로 공포정치의 종결을 요구했다. 대단한 웅변가이면서도 낭비벽이 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1794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에로 드 세셸 Marie-Hean Hérault de Séchelles, 1759~1794

1793년 헌법작성자이자 국민공회, 공안위원회 위원. 망명 귀족의 아내를 정부(情婦)로 두었으며 쾌락주의 성향으로 인해 로베스피에르의 불신을 샀다.

세바스티엥 라크루아 Sébastien Lacroix, 1768~1794

변호사. 파리의 구(section)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한 혁명 투사들 중 한 사람

카미유 데물랭 Camille Desmoulins, 1760~1794

프랑스 혁명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자 국민공회 의원. 공회내에서 자코뱅당원으로 지롱드파 숙청에 앞장섰으나 이후 당통을 따라 관용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공안위원회를 비난하며 로베스피에르와 대립하게 되고 당통과 함께 처형당했다.

피에르 니콜라스 필리포 Pierre Nicolas Philippeaux, 1756~1794

법률가 출신의 국민공회 의원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국민공회 의원. 자코뱅당의 좌파로 극진파인 에베르 일파와 관용파인 당통 일파를 처형시킴. 혁명의 과정에서 엄격한 미덕과 함께 공포를 강조했다.

루이 드 생-쥐스트 Louis Antoine de Saint-Just, 1767~1794

국민공회 의원이자 공포정치 시기 공안위원회 의원. 공포정치의 열렬한 옹호자. 반혁명 혐의자들의 재산을 몰수, 무상분배한다는 내용의 '방토즈법'을 통과시켰다.

콜로 데르부아 Collot d'Herbois, 1749~1796

배우, 무대감독 출신 국민공회 의원. 8월 10일 봉기의 주동자 중 하나. 이후 부도덕함을 빌미로 당통을, 과도한 공포정치와 숙청을 빌미로 로베스피에르를 몰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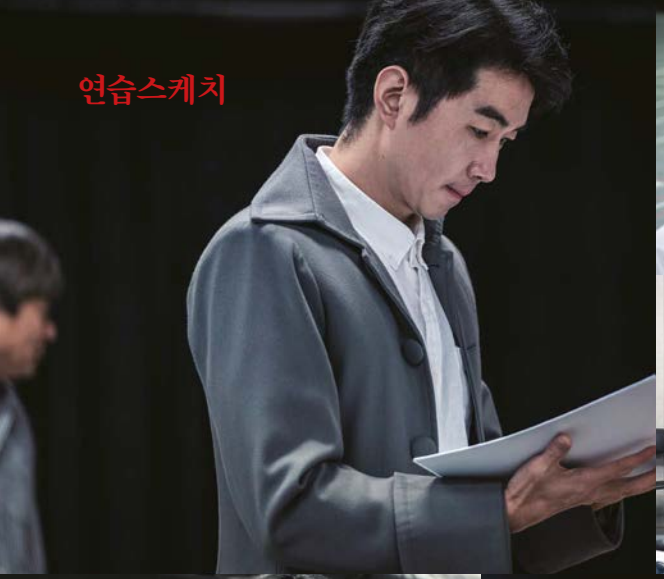
토마스 페인 Thomas Paine, 1737~1809

영국 태생의 미국 언론인. 1791년 프랑스 혁명과 공화제의 이상을 옹호한 <인간의 권리>로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국민공회에 진출. 군주제 철폐에는 환호했으나 루이 16세의 처형에는 반대. 이 일로 투옥되었다가 로베스피에르가 죽은 뒤 석방되었다.

시민들, 일명 상퀼로트 Sans-culottes

혁명적 민중이나 혁명당원을 지칭하는 용어. '퀼로트(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귀족이나 부르주아 같은 상층 계급 남성이 입는 퀼로트 바지를 입지 않고 육체노동하기에 편한 통바지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습스케치



스태프 프로필

작

게오르크 뷔히너 Georg Büchner

프로필 2페이지

각색·연출

이수인 Lee Su-in

프로필 4페이지

드라마투르기

우수진 Woo Su-jin

프로필 8페이지

무대디자인

정영 Jaung Young

연극
<어둠상자> <철수의 난> <치정> <청춘, 간다>
<매화리극장>

오페라
<안나볼레나> <유진오네긴>

조명디자인

성미림 Sung Mi-lim

연극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투> <궁립공단_무아실업>
<비명자들1> <세기의 사나이> <어둠상자>
<아리아 다 카포>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외

의상디자인

이명아 Lee Myoung-ah

연극
<어둠상자> <운명> <맨끝줄소년> <트로이의 여인들>
<농담> <맥베드> <한여름밤의 꿈> 외

음악감독

김은정 Kim Eun Jeong

<한 여름밤의 꿈> <햄릿> <발레뮤지컬, 심청>
<벗꽃동산> <서울의 착한 중이>
<최서림야화순례기행전> <어둠상자> 외

분장디자인

김근영 Kim Geun-young

<비평가> <단편소설집> <어둠상자> <운명>
<달걀의 모든얼굴> <네더> <농담> 외

소품디자인

박영애 Park Young-ae

연극
<런닝맨> <어둠상자> <베이블레이드>
<그리워 그리워> <토막>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박웅의 수상한 수업> 외

오페라
<망부운> <아이다>

음향디자인

엄태훈 Uhm Tae-hun

연극
<데모크라시> <어둠상자> <소> <C가 왔다>
<왕과 나> <신시야화> <해피투게더> 외

무대감독

조영준 Cho Young-joon

콘서트
<슈퍼밴드 전국투어 콘서트>

축제
<서울재즈페스티벌><덕수궁 풍류음악회>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무용
<발레 오브 썸머 나잇> <련> <배비장전>

연주자

박이현 Park E-hyun

연극
<길 위에서> <샤프심> <벗꽃동산>
<음악극, 서울의 착한 중이> <박씨전>
<최서림, 야화순례기행전> <나팔봉>

조연출

한유주 Han Yoo-joo

연극
<더 헬멧>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

뮤지컬
<앙상블> <미아 파밀리아> <카르밀라>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붉은 정원>

박현지 park hyeon-ji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쪽빛의 노래> <데모크라시>
<진실거짓> <연극동네 연희마당> <하이마스크>
<주류사회>

출연

강지완 고애리 김수아
김세동 김지숙 김 현
마광현 박창순 백익남
송은지 엄태준 이원희
이현호 장승연 장지아
주인영 홍아론
박이현(연주자)

스태프

작
게오르크 뷔히너

각색·연출
이수인

번역
임호일

드라마투르기
우수진

무대
정영

조명
성미림

의상
이명아

음악
김은정

분장
김근영

소품
박영애

음향
엄태훈

조연출
한유주 박현지

무대감독
조영준

무대진행
김선우 이미현

의상진행
김민주 김서영

음향오퍼레이터
최나영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류선영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팀
맹우영 김채원 임학균
한수연 류한나

음향팀
박상준

분장팀
김근영 김경희 배은경

무대제작
수무대 대표 구상현

의상제작
버즈핏 대표 이명아

소품제작
정민아트 대표 박영애

무대 어시스턴트
최윤민

조명 어시스턴트
홍주희

의상 어시스턴트
조우리 정유성

소품 어시스턴트
이미선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최윤영 이송이 김율

마케팅
오지수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이정민 김효진 조영채

대학생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만드는 사람들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위드텍스트 대표 이지선

홍보영상
602 STUDIO 대표 김영준
오슬로 프로젝트 대표 이영관

기록영상
미니멀랩프로덕션 대표 전호식

홍보사진
앤플러그 대표 나승열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대표 최경미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붐빔 대표 김은총

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보연

매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노소연 박민주

하우스 매니저
김수현 조영채 김나래

안내원
김성주 권묘정 전준형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오민지 김희지 정주호 지윤아
연하은 이민경 임지은

기획·제작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박성호

제작진행
장지은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국립극단 임직원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송이 변정원 김율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직무대리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지 배규림 작은극장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용 주인영
홍아론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알리바이 연대기

공동창작
연출 김재엽

드라마투르기 김현수
무대 정수미
조명 곽태돈
의상 황인화
분장 정정숙
사운드 정의석

출연
유은지
정슬기
허정도
황인수

이상
「오감도」
시제1호

2019.10.11–11.03

소극장 판

SHINSEGAE 韓國新世界免稅店 푸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국립극단

작·연출. 김재엽

알리바이 연대기

2019. 10. 16.–11. 10.

명동예술극장

출연:
남명렬, 백운철,
유병훈, 유종연,
유준원, 이종무,
전국향, 정원조,
지춘성

SHINSEGAE 韓國新世界免稅店 푸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 인터파크 1544-1555 | 예스24 1544-6399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Myung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www.ntck.or.kr

국립극단